

최근 4년간 광주·전남 건설사 150여 곳 부도

## 미분양 해소 등 대책 서둘러야

### 국감 자료…건설사 연쇄부도 우려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의 여파로 최근 4년간 광주·전남에서 부도처리된 건설사가 15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부도 건설사 10곳 중 6곳 이상이 전문건설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미분양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해양부가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149곳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도 건설사(1천315곳)의 11.3% 수준으로, 광주·전남 등 지방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연쇄 부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는 종합건설업체 16곳과 전문

건설업체 47곳 등 총 63곳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 등의 여파로 부도처리됐다.

전남도 같은 기간 부도업체가 종합건설업체 39곳과 전문업체 47곳 등 총 86곳에 달했다. 또 전남의 경우 거점건설 등 시공능력순위 1천위권의 중견업체 6곳이 문을 닫을 만큼 업계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전문업체의 부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4년간 광주·전남에서 부도 처리된 전문업체는 무려 94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부도 건설업체 가운데 63.1% 수준으로, 시장 침체의 '불똥'이 하청업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분양 적체 등으로 인한 종합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전문업체로 전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 4년간 부도 건설업체(1천 315곳)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의 중견 건설업체는 53곳에 달했다.

또 전국의 경우 올 들어 8월까지 전문업체 177곳이 문을 닫으면서 전체 부도업체(255곳)의 69.4%를 차지하는 등 업계의 자금난이 하청업체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건설사 부도의 주원인이 미분양주택 급증에 있으며, 이로 인해 회수되지 못한 자금이 전국적으로 22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건설업체의 '부도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 서라도 정부가 시장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예컨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나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과 함께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물량을 특수목적회사에 넘기고 ABS(자산 유동화증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사들인 뒤 건설사에 팔게 하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신세계 백화점 4층 와코루 매장에서는 남성들이 걷는 동안 보행법을 바로잡아 영동이를 올려주고 복부를 조여 지방 분해효과가 큰 크로스워커 이너웨어를 선보이고 있다. 판매가는 7만5천원.

〈광주신세계 제공〉

## “中企 신용 위험 5년래 최고”

### 은행 “대출 심사 강화”…자금난 가중 될 듯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출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는 은행들이 크게 늘어났다.

경제여건의 악화로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늘겠지만 은행들이 심사를 강화, 대출을 바짝 조일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은행이 국내 16개 은행의

여신총괄담당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50을 나타냈다.

이는 관련통계가 작성된 지난 9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던 2003

년 3분기(50)와 같은 수준이다. 이 지수가 풀리스면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다는 뜻이다.

3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도 47을 나타내 전분기(35)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한은은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경기 민감업종을 중심으로 대출부실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둔화에 따른 매출부진, 재고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의 4분기 대출수요지수 전망치는 34로 2002년 1분기(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출재원 확보의 어려움, 신용위험 우려 등으로 심사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 중동 기업 2곳 화순에 공장 건설

### 박준영 지사 “AI 치료제 등 생산 합의”

뇌수막암·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치료제와 화장품·피부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중동지역 기업 2곳이 화순에 생산공장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6일 유럽·중동 순방 성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중동지역 기업 2곳이 국내 투자에 큰 관심을 표시했으며, 화순에 뇌수막암과 AI 바이러스 치료제, 피부치료제 등

의 생산공장을 건설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를 기업과 바이러스 분야의 연구개발, 마케팅,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첨단 광학기기·분석계측

기 생산업체인 독일 기업이 아시아 지역 생산거점 확보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전남을 후보지로 검토하기로 약속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모듈 생산업체와도 부품 제조공장 설립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현지의 많은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전남의 자연환경과 기업 여건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투자를 희망했다”며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9월 3,354억 사상 최대

### 8월보다 29% 증가

부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총 3천354억원(기한연장 포함)으로 지난 8월(2천

592억원)에 비해 29%, 전년 동기(2천424억원)에 비해 64%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3월 공사 창립 이래 최고치다.

특히 9월 한달간 기한 연장을 제외 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2천618억 원으로 지난 8월(2천137억) 대비 23%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1천 307억원) 대비 100% 이상 급증했다.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수도

8월의 8천555명에서 9월에는 1만228명으로 20%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로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게 신청자격을 주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 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1억원(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이다.

/연합뉴스

## ‘봉고 III LPI 1t 트럭’ 출시

### 기아차, 고성능·친환경 LPI 엔진 탑재

기아자동차는 6일 고성능·친환경 LPI 엔진을 탑재한 ‘봉고 III LPI 1ton 트럭’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봉고 III LPI 트럭’은 최대출력 159마력(ps), 최대 토크 23kg.m의 동력성능과 연비효율 8.3km/l의 세타 2.4 LPI 엔진이 장착돼 있어, 뛰어난 동력성능과 경제성을 실현했다.

또 친환경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돼 수도권 공영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진동과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해 뛰어난 승차감을 구현했다.

특히, 경제성이 뛰어난 LPG 연료를 사용해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디젤차량에 부과되는 환



경기부담금의 납부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밖에 ▲중량화물 적재시 안정적인 차체 유지를 위한 하드 서스펜션 ▲차체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고하중 타이어 ▲휠로타일출 및 등관능력 향상을 위한 차동기어 잠금장치(휠로탈출장치, LD) 등이 기본 적용됐다.

시판가격은 1천146만~1천306만원.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하나투어**

한국관광공사 주관  
국내 여행사 대상  
국내 여행사 협동체

**1등 여행사 협동체 1위(45%)**

2008년 10월 7일 기준

BEST OF BEST

2008년 10월 7일 기준

부안→홍콩 항공기 티켓

2008년 10월 7일 기준

부산→제주 항공기 티켓

2008년 10월 7일 기준